

화제

포항종합제철

* 핫코일 60만t 증산 *

포항제철이 공급부족 현상을 빚고 있는 핫코일(열연강판) 생산을 60만t 늘려 수요업체들에게 공급하기로 하였다. 핫코일은 자동차나 양식기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냉연강판의 소재로 포철은 지난해 냉연제품 수요가 줄자 핫코일 내수 공급량을 연산 720만t에서 620만t으로 줄이고 국내 수요 초과분을 수출로 전환했으나 최근 업계의 재고조정과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증대로 내수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 공급량을 늘리기로 하였다 먼저 광양 1열연공장 생산 규모를 기존 450만t에서 510만t으로 늘리기로 하고, 또 수출로 전환했던 20만t을 내수로 돌려 국내에 올해 700만t의 핫코일을 공급할 계획이다.

* 전기강판 경쟁력 강화 본격 추진 *

포항제철 냉연부가 전기강판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냉연부는 3월초 기술연구소, 판매부문, 공정부, 품질기술부, 제강부, 열연부 등 전 공정 부서는 물론 정비 부서도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편성하여 오는 6월까지 소재 품질 개선, 공정개선, 생산 및 납기 개선의 3개 그룹별 개선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냉연부는 방향성 전기강판의 대표품질인 철손율 5% 향상시키고 현재 96.7%인 납기보증률을 100%로 향상시키는 등 의욕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집중적 개선효과를 얻기 위해 매주 1회씩 회의를 열어 분야별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공동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 철강 로컬가격제도 폐지 *

포항제철이 내수판매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값으로 제공하던 로컬가격제도를 폐지하고 철강재 판매가격을 단일화하기로 하였다 또 수요업체의 철강 구매량에 따라 값을 깎아주는 특별할인제도(LOT~DC)를 도입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포철은 그동안 수출용 원자재로 철강제품을 구매하는 수요업체에는 내수판매가격보다 낮은 값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로컬가격제도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이중 가격 구조가 최근 철강 통상마찰의 빌미가 되자 가격제도를

개선해 내수판매 및 수출용 원자재 판매가격을 동일 가격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 1억5천만원 공사 수주 *

현대중공업이 대만 남서부에 위치한 융안(永安)LNG터미널에서 북서쪽에 위치한 텅샤오(通需)까지 가스송출용 36인치 해저 파이프라인 237.7km를 설치하는 공사를 1억 5,000만 달러에 수주하였다. 현대중공업은 발주처에서 파이프를 공급받아 운송과 설치, 시운전까지 일괄 수행하며 계약과 동시에 공사에 들어가 아시아에서 유일한 반잠수식 파이프라인 부설 선을 이용해 올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 부설 선은 세계에서 4척 밖에 없는 작업 선으로 강풍과 파도 등 악조건에서도 작업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최대 파이프 지름 60인치까지 부설이 가능하며 일반 부설바지선에 비해 공사기간을 20% 이상 앞당길 수 있다.

* 세계최대 디젤발전소 준공 *

현대중공업은 인도 남부 항구도시인 마드拉斯시에서 세계 최대 규모인 200MW급 디젤발전소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현대중공업은 이 발전소를 96년 11월 인도 전력회사인 GMR사 측에서 일괄수주 방식으로 수주하여 2년 4개월 여 만에 준공하였다 기존의 대형 발전소가 화력, 원자력, 수력 발전소인 점을 감안하면, 이 발전소 준공은 디젤발전소를 대형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이 발전소에서는 7만 4,000마력급(5만 2,000kW급) 초대형 저속엔진 4기를 사용하게 된다

현대자동차

* 스타렉스 2개 모델 판매 *

현대자동차는 승합차인 스타렉스의 경제성과 성능을 크게 보강한 '디젤 터보 인터쿨러'와 'V6 3.0 LPG' 등 2개 모델을 새로이 출시한다. 이들 2개 모델은 그동안 판매해 온 디젤 터보와 2.4LPG를 대체하는 것

으로 성능과 경제성을 모두 높이면서 고객의 선택폭을 넓혔다. 또한 2개 모델 모두 엔진 힘을 100마력 이상으로 높이고 내·외부를 한층 고급화하였다 티보 인터쿨러는 강한 압력으로 흡입 공기량을 늘려 같은 배기량의 다른 엔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능을 내는 경제적 모델이며, LPG 모델은 값싼 연료인 LPG를 사용하는 데다 고출력의 V6 3.0엔진을 장착해 강력한 힘을 낸다

* 해외홍보팀 발족 *

현대자동차가 업계 처음으로 외국인으로 구성된 '해외홍보팀'을 출범시켰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현대자동차를 외국 투자자에게 보다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제조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외국인 위주 홍보팀을 구성하였다"고 말하였다. 이들은 현대자동차를 방문하는 외국 투자가와 외국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활발한 홍보활동을 하게 되며, 다양한 언어로 각종 홍보책자를 만들어 외국 현지에 보내줄 예정이다.

* 소형차 일본 수출 *

현대자동차는 일본차의 국내 진출에 맞서 내년 말 소형차로 일본시장에 본격 진출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기자 간담회에서 "일본 진출을 위한 연구를 마쳤다"며 "절차를 밟는데 1년반 정도 걸리는 만큼 2000년 말 정도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행동계획을 짜고 있다"며 "세계 시장에서 마지막 남은 곳은 일본"이라고 말해 상당한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국산 차는 현재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는 이와 관련해 내년 중 일본 현지에 판매법인을 세울 계획이다.

대우중공업

* 이집트 선박 2척 수주 *

대우중공업은 이집트의 최대 해운회사인 NNC사에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 2척을 8,000만 달러에 수주하였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길이 215m, 폭 32.2m, 깊이 19m로 20피트급 컨테이너 3,000개를싣고 21.6노트(시속 40km) 속도로 운항할 수 있다 대우는 이 선박들을 2000년 중반까지 건조해 선주 측에 인도할 예정이다.

* 印에 철도차량기술 수출 *

대우중공업이 인도 메가섬사와 철도차량용 전원 공급장치 2종에 대해 철도차량 기술과 부품 1억 6,000만달러어치를 수출한다. 대우중공업은 메가섬사에 5년 간 자사 철도차량 전원 공급장치인 인도 내 생산 독점판매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순매출액의 5%를 기술이전료로 받기로 하였다 또 10년 간 1척에 6,000만 달러 상당의 제어기, 변압기, 리액터류 등 전원 공급장치 핵심부품도 공급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기술을 제공하는 전원 공급장치는 전기기관차와 여객용 객차에 공급하는 고압의 전원을 냉난방기, 형광등 같은 저압교류전원으로 전환하는 장치이다. 이는 첨단 전력반도체소자를 이용하여 섭씨 55도의 고온에서도 작동이 가능해 인도의 고온 다습한 환경에 적합하다.

* 원유시추선 3억弗 수주 *

대우중공업은 네덜란드의 페트로드릴사에서 반잠수식 원유시추선 2척을 3억 2,000만 달러에 수주하였다 이 시추선에는 해상조건에 따라 위치를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다이내믹 포지셔닝 시스템이 설치되고 수심 1,500m 바다에서 해저 9,000m까지 시추할 수 있다. 이는 전세계 동급 시추선 중 가장 가벼운 중량으로 심해에서 원유시추를 비롯한 기타 해양탐사작업이 가능하도록 한 차세대 시추선의 대표적인 설계로 알려져 있다 대우중공업은 이 원유시추선의 시운전을 마치고 내년 말까지 모두 인도할 계획이며, 페트로드릴사는 시추선을 브라질 근해 해양 유전개발에 투입할 예정이다. 대우는 지난해에도 2척의 수주선을 수주하는 등 지금까지 총 12척의 원유시추선을 건조해 인도하였다. 회사 관계자는 "전반적인 시추선 시장의 침체와 관계없이 이번에 수주한 차세대 특수선형의 시추선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

* GE 발전설비 공급사로 지정 *

삼성중공업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미국 제너럴일렉트릭의 발전설비 공식 공급업체로 지정되었다 이는 세계 가스터빈 시장에서 최고 기술을 가진 GE에서 생산, 기술, 영업, 엔지니어링 등의 실사를 통해 아시아 동종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사업 동반자로 인정받은 것이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미국의 GE와 파슨스 전력그룹에서 배열회수 보일러(HRSG) 3기를 총 1,600만 달러에 수주하였으며 GE와는 1억 달러 규모의 추가 수주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배열회수 보

일러분야에서 세계 시장의 7 1%를 점하고 있으며 순위로는 세계 6위이다

* 美 해군 크레인설비 독점 *

삼성중공업이 미 해군이 발주한 1억 8,000만 달러 규모의 크레인설비 국제입찰에서 공급업체로 선정되었다. 삼성이 이번에 수주한 크레인설비는 총 21기 1억 8,000만 달러 규모로 설계에서 제작, 설치까지 책임지는 턴키방식이다 그 동안 미 군사시설 분야에서는 미국 업체들만 참여해온 게 관행이었으며 이번처럼 대형 장기 프로젝트를 외국업체에 발주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미 해군기지는 빈번한 군수품 운반은 물론 폭발 가능성에 대비해 상업항보다는 엄격한 품질기준과 입찰자격을 요구하고 있으며 삼성은 이미 롱비치와 애버글레이즈항 등 미국의 주요 항만에 크레인을 납품해 가동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주요 항만과 해운기지에 크레인을 설치한 바 있다

* 컨테이너선 6척 수주 *

삼성중공업은 독일의 오펜사에서 3,400TEU급 컨테이너선 5척과 2,500TEU급 컨테이너선 1척을 3,000만 달러에 수주하였다 이들 선박은 항만시설이 미비하고 수심이 얕은 곳에서도 쉽게 정박할 수 있도록 특수 설계되었으며 운반하역시설이 없는 항만에서도 작업하기 편하도록 자체 운송하역 크레인 4기를 장착하였다 삼성은 2000년 말부터 2001년 6월까지 차례로 선박을 인도할 예정이며, 세계적인 컨테이너 선사인 P&O 네드로이드사가 용선해 남미 항로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오펜사는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해운사로 1970년에 설립되었으며 지난해부터 총 10척의 동일선박을 발주해 왔다

* 초대형 유조선 인도 *

삼성중공업은 미국 세브론사에서 수주한 초대형 유조선인 ULCC의 건조를 마치고 선주사에 인도하였다. 이 선박은 길이 330.5m, 폭 58m, 깊이 31.25m에 원유 31만t을 적재해 운항할 수 있으며, 삼성이 자체 개발해 생산한 3만 5,000마력의 대형 엔진을 탑재하였다. 또한 해상 오염방지 극대화를 위해 화물탱크는 물론 연료탱크까지 이중 선체로 건조하였다 이 선박은 앞으로 220만 배럴의 원유를 적재하고 16노트의 속도로 중동과 미국 사이를 운항할 예정이다

한국중공업

* 보일러 기자재 6,500만弗 공급 *

한국중공업이 프랑스 알스톰사에서 대만 화력발전소용 보일러 기자재 6,500만달러어치를 수주하였다 보일러 압력부는 발전에 필요한 고온 고압의 증기를 발생시키고 전달하는 보일러 핵심설비이며, 에어가스 덱트는 연소된 가스를 보일러 굴뚝으로 전달하는 배관설비이다 한중은 이에 따라 보일러 압력부와 비압력부 설비를 2001년 4월말까지 창원공장에서 제작해 현지에 공급할 예정이다 대만 호평 화력발전소 건설공사는 수도 타이베이에서 120km 떨어진 중동부 해안지역에 660MW급 2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앞으로도 미분기, 공기예열기, 전기집진기 등 발전소 주요 설비 발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GE에 발전설비 수출 *

한국중공업은 미국의 발전설비 전문업체인 제너럴일렉트릭(GE)에 1억달러 상당의 발전설비를 수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에 양해각서를 통해 공급하기로 한 발전기와 터빈은 GE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방식으로 수출하게 된다

* 1억7천만Fr 플랜트 수주 *

한국중공업이 쿠웨이트 수자원전력청에서 1억7,000만 달러 규모의 해수담수화 플랜트를 수주하였다 이에 따라 한중은 세계 해수담수화플랜트 시장에서 2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해 제1위 해수담수 플랜트 업체로서 위치를 다지게 되었다. 이 해수담수화 플랜트는 하루 2,800만갤론의 담수를 생산해 쿠웨이트 중남부지역에 식수와 농·공업 용수로 공급한다. 한중은 이 플랜트의 기본설계에서 기자재제작, 시공, 시운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하며 2002년 3월에 준공할 계획이다

* 발전설비 2,200만Fr 수출 *

한국중공업이 태국에 복화화력발전소를 EEPI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방식으로 건설한다 105MW급의 이 발전소의 계약규모는 총 2,200만 달러이며 방콕에서 남동쪽으로 80km 떨어진 출부리지역에 건설되고 전력은 태국전력청, 스팀은 래임차방공단에 공급된다 한중은 이 발전소의 가스터빈과 폐열회수보일러 각 2기를 창원공장에서 제

작해 2000년 6월까지 현지에 설치할 예정이다. 한중 관계자는 “태국정부에서 민자발전사업으로 2007년까지 총 6,500MW의 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볼 때 시장 진출의 의미가 크다”고 설명하였다. 복합화력발전소는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해 환경 오염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다.

현대건설

* 3억 500만弗 수주 *

현대건설은 민간 발전소 건설회사인 미국 AES사가 방글라데시에서 발주한 복합 화력발전소 2기를 일괄도급 방식으로 3억 500만 달러에 수주하였다. 이 공사는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20km떨어진 하리푸르와 메그나갓 지역에 각각 365MW와 450MW급 화력발전소를 건립하는 공사이다. 이번 공사를 발주한 미국 AES사는 세계 최대 민간 발전소 건설업체로 세계 16개국에서 발전소 58개를 운영하거나 건설하고 있다.

* 해외공사 8,800만Fr 수주 *

현대건설이 싱가포르 창이 매립공사와 요르단 항만 건설공사 등 모두 8,800만 달러 상당의 국외공사를 수주하였다. 현대건설은 싱가포르 국가개발부가 발주

한 창이 동부 A-북부지역 매립공사 국제입찰에 현지 업체인 쿤, 네덜란드의 보스칼리스와 컨소시엄을 결성해 응찰, 6,300만 달러 규모의 매립공사를 수주하였다. 이 공사는 현대건설이 현재 시행중인 8억 9,000만달러짜리 창이 동부지역 매립공사의 추가 공사 분으로 1999년 3월에 착수하여 2003년 2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81년부터 싱가포르의 매립공사에 참여해 전 국토의 4%에 해당하는 2,300만m³의 매립 공사 실적을 올린 바 있다. 또 요르단 공공주택 사업부 산하 항만청이 발주한 2,500만 달러 규모의 아카바 항만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데 성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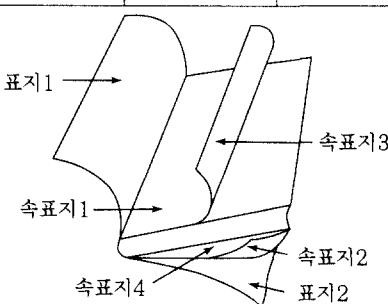
* 홍콩서 600억 수주 *

현대건설이 홍콩에서 미화 4,751만 달러(약 590억 원) 규모의 건설공사를 수주하였다. 현대건설은 홍콩 국토개발청이 발주한 란타우섬 북부개발지역의 매립 공사를 단독 수주하였다. 이번 공사는 홍콩 체립록 신 공항 주변에 배후 상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바다 8만 1,000평을 메우고 1.5km 길이의 제방과 배수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공기는 35개월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현대건설의 올 국외공사 수주실적은 모두 9억 1,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 또 이번 수주 분을 포함해 홍콩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사가 총 6억 8,000만 달러에 달해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관계자는 전하였다.

광고/회원사 소식 게재 안내 (042)828-6511~2

대한용접학회지 광고 게재료 안내

게재면수	필립규격 (A4)	광 고 료		
		1회 게재	색상	흑백
표지 1	21x30cm	500,000원	칼라	,
표지 2	"	450,000원	"	,
속표지 1	"	450,000원	"	,
속표지 2	"	350,000원	"	,
속표지 3이후	"	300,000원	"	150,000원



* 기타사항 *

- ① 6회(1년분) 게재시 10% 할인
(표지1,2, 속표지1 제외)
- ② 광고필름 제작시 제작비 별도
- ③ 기사식 단색광고는 15만원
광고문의 안내(042-828-6511)